

김영록, 전남 동부권 공들이기... “순천 르네상스시대로”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연일 전남 동부권 공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는 3일 오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을 정원에서 시작해 세계로 뻗는 행정중심 문화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의 가능성은 전남광주특별시장의 가능성”이라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보여준 글로벌 성공 사례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우선 순천에 예술의전당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순천에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해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203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개최, 순천을 대한민국 스포츠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여수·광양을 잇는 분산개최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순천 팔마체육관 등 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

“행정중심 문화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 공약
203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예술의전당 건립
제2 순환도로 신설, 파크골프장·리조트 조성도

적인 스포츠·청년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순천지역의 고질적인 도로교통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을 통과하는 제2 순환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하단 유희부지에 세계 유일의 108홀 규모의 국제 수준 파크골프장, 가족형 리조트를 건립해 휴양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통합특별시 주청사 중 하나인 동부청사 규모를 3배로 확대하고, 부시장 1명을 상주 배치해 특별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환경공단·에니메이션 등 문화관련 공공기관을 함께 유치하고, 신대지구에 국제학교를 신설해 해외유학을 가지 않아도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설명했다.

김 후보는 “순천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 만큼 순천 만의 역량을 살려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며 “통합특별시를 대표하는 행정허브이자 교통·글로벌 교육·K(케이)-콘텐츠·스포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순천 르네상스 시대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남 오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석유화학 산업 대책 추진과 민생 추경 확보 등을 통해 여수 경제 위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동부권 살리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광수 기자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예비후보가3일오후순천시의회소회의실에서순천르네상스시대조성공약을발표하고있다. 사진=김후보측제공

‘이번 없었다’ 與 구청장 경선 현역 불패 왜?

‘무주공산’ 북구 4개 구청장 후보 모두 현직이 경선 승리
인지도·조직력 앞선 ‘현직 프리미엄’에 경선 물도 요인 작용
네거티브에 문헌 정책 경쟁, 토론 전무... “경선 제도 개선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기초단체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현직 구청장들이 잇따라 공천장을 거머쥐며 ‘현직 불패’를 또 한 번 입증했다.

배경으로는 전통적인 현직 프리미엄 외에도, 조직력 등이 크게 작용하고 토론 한 번 없었던 경선 방식(물)과 함께 정책 경쟁 실종 등이 꼽힌다.

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 5개 구청장 후보 경선 결과 현직 구청장인 임택(후구)·박병규(광산구)·김이강(서구)·김병대(남구) 후보가 모두 공천을 따냈다.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3선에 도전하는 임택 동구청장 후보는 당내 3인 경선에서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현직 구청장에 맞선 후보 연대가 있었지만 과반 득표를 확보, 결선 없이 곧장 본선인 6·3선거로 직행했다.

조국혁신당에서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후보 출마 결심을 굳히며 ‘리벤지’ 매치가 예고돼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후보도 3인 경선에서 결선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다. 경선 낙선 후보들의 재심 신청마저 기각되며 재선거에 탄력이 붙었다.

박 후보는 4년 전 초선에는 다른 정당 후보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당 정희성 후보와 광산구청 재입성을 다룬다.

현직인 김이강 서구청장 후보는 1대1 맞대결로 치러진 경선에서 승리, 재선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

3선 김병대 남구청장 후보는 예비경선 주자 4인 단일화 연대에도 불구, 3선 구의원 황경아 후보와 결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지었다.

서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김 후보 뿐이다. 남구청장 선거 역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주자가 한때 거론되기도 했으나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다.

현재로서는 서구청장·남구청장 선거 모두 민주당 후보만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직 구청장의 불출마로 유일한 ‘무주공산’이 된 북구청장 경선은 예비경선을 거치며 신수정·정다운 두 여성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됐다.

오는 9일 치러지는 결선으로 공천 향배가 결정된다.

누가 이기든, 본선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광주 지역 첫 여성구청장이 된다. 야당에서는 진보당 김주엽 후보만이 출마를 확정할 만큼 맞대결 성사 가능성이 높다.

‘현직 프리미엄’의 원인으로는 현직 구청장이 제1기 중 축적한 인지도 등에서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 킷오프’ 원칙과 관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 등 민주당 경선 물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는 경선 때보다도 국회의원인 각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작용하기 어려웠고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관리당원을 다수 확보한 현직 구청장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선이 현직 심판 또는 재신임 투표 성격의 선거 구도가 자리잡지 못한 탓도 있다고 풀이한다.

도전자인 경선 경쟁후보들이 스스로 현직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유의미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네거티브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민주당 역시 정책·공약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공개 토론은 없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단 하루동안 5개 구청장 경선 후보 전원이 차례로 연단에 서는 합동연설회만 1차례 열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 및 방법에 합동토론회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5개 구청장 경선 모두 공식·비공식이든 토론 한 번 열리지 않았

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생활민선 행정에 대한 성과 평가다. 사실상 임기 4년 내내 주민을 일일이 만나며 상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직 구청장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관리당원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경선 물이면 조직을 갖춘 현직이 유리하다. 다만 후보 간 정책·공약 경쟁이 있었는지, 당원·유권자가 욕석을 가려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은 현직이 재평가 대상으로 수세에 놓일 수도 있다. 공방 과정에서 후보 선택 기준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광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해 무투표 당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개선된 경선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시스

진도군, ‘박지원 국회의원과의 함께하는 현안 간담회’ 개최

군정 핵심 현안, 국고 사업, 제도개선 건의... 지역발전 해법 모색

진도군은 4일(토) 진도군청 회의실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군정 주요 현안과 국고 사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5년산 겨울대파의 수급안정을 위한 산지폐기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에 따른 추진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대응 등 지역의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진도군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대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239헥타르(ha) 규모의 산지 폐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3.6GW)가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군민 이익공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른바 ‘바람업권 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군은 바람업권과의 시너지 효과 등 지역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진도군은 국고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남도 어울림 진도 민속예술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진도군에는 생태탐방원이 없는데,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의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해 ‘2027년도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의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진도군의 풍부한 민속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민속예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 산업화를 아

우르는 거점 구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범인의 허용 인원 확대 ▲정원 조성 시 농지와 임야의 전용 규제 합리화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진도군의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농업용 기자재 수급 점검 ‘비상전국점검’ 본격 착수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중동 전장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농업 생산비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장성에 있는 황룡농협자재센터를 방문해 중동 전장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받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는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 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농기계용 면세유와 비료 지원 확대 등 현장 건의 사항에 대해 “추경도 설정하고 지원책도 강구했는데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해서 앞으로 더 논의하겠다”며 “면세유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찾아 비상 전국 점검을 실시 중이다. /뉴스시스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
청산도 슬로걸기 축제
2026. 4. 1. ~ 4. 30.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2026 Pre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
기후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미래
2026. 5. 2. SAT - 5. 7. THU
완도군 해변공원 및 해양치유센터 일원